



## 칼빈의 법이해와 그리스도인

김범준

이 논문은 성경의 권위를 재발견하고 부패한 교권제도의 횡포를 버리고 그 자체의 기초를 하나님 말씀에 둔 존 칼빈의 법에 대한 사상을 고찰해 봄으로써 법의 영역에서 그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법사상이 자연법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법의식을 촉구하는 것이 이 글의 본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법을 대하면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을 대두시키는 이유는 칼빈주의가 신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사상체계로서 그 사상범위에 신학과 동시에 법, 정치, 사회, 과학, 예술 등에 관한 사상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사상체계는 인생관, 우주관, 세계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성경적 사상체계이며 또 성경적 인생관과 세계관<sup>1)</sup>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 1. 칼빈의 법이해에 관한 세계관적 전제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수적으로 볼 때 과학이나 예술, 정치나 사회문제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 초대교인들은 그리스도와 로마세계에서 박해와 조롱외에는 받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그 당시에는 수동적인 인내와 순종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전파하는 것 외에는 달리 취할 태도가 없었다.<sup>2)</sup> 그러나 그들의 문화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가 “자연적인 삶” 그 자체가 사악한 것이라고는 생각지 아니하였다. 결혼과 가정생활, 세속직업과 군복무<sup>3)</sup>, 과학과 예술과 철학 이 모든 것들은 애초부터 신의 선물로써 인식되어 왔다. 이와같은 이유로 해서 신학은 일찍이 철학과 밀접한 관계속에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시오, 과거에 이방인으로 하여금 그를 더듬어 찾도록 자신의 흔적을 남겨 두셨다는 확신 때문에 상기한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다. 타락한 형태이기는 하나 역사 속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원초적 계시가 이방 문화 속에 존재한다. 이방 세계에 산재해 있는 철학적 사고, 윤리적 인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고 조화된다. 그것들은 예수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 이방사상 특히 철학사상은 우리를 예수에게 인도해 주는 몽학선생이다.<sup>4)</sup>

#### 1.1 법에 대한 아퀴나스적 개념

그러나 중세 로마 카톨릭교회는 자연과 은총의 통합을 구조적으로 바꾸어 버렸다. 여기에 영향을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끼친 인물이 곧 토마스 아퀴나스다.<sup>5)</sup> 스콜라철학은 철저한 로마카톨릭적 사상체계로서 기독교 사상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와서도 바른 성경적 사고를 저해하는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적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두드러지는 지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에 이르러서이다.

세상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다음과 같은 이원론적 구조에 기초하고 있다. 이 세상은 그 자체로서는 선하나 자율성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영역인데 반해, 신앙과 은총 곧 종교의 영역인 저 세상은 신의 계시가 지배하는(신의 계시로서 투영되어야 하는)보다 고상한 영역이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와 열정을 고정시켜야 할 영역은 바로 그곳이다. 그러나 인간과 '자연'에 속한 이 하부세계는 이성(理性)으로써 이해 가능한 영역으로, 사실상 이성의 통치하에 있다. 그만큼 비종교적이요, 세속적인 이 영역에서는 신자와 불신자 모두 차별없이 자연법에 따라 사유하며 행동한다.<sup>6)</sup> 아퀴나스는 인간의 지성은 타락하지 않고 자율적이라는 "성경적 타락에 대한 불완전한 관점"을 취한다. 그는 성경적인 타락의 의미인 전인적 타락을 축소시켜 인간의 의지는 타락했으나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다는 불완전한 타락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성은 자율적이므로 계시와는 무관한 영역을 설정하였다.

아퀴나스는 이성적 기능을 절대화시켰고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까지도 지성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성주의적 사상체계는 인간의 이성에 근거를 둔 일반규칙으로서의 법을 하위수준으로 끌어내렸다. 법은 단지 죄가 지배하는 시간내적 세상생활에 긍정적인 질서를 세우는 정도가 되었다. 법의 영역으로서의 자연은 은혜에 대하여 화해할 수 없는 대립관계로 이원화하였다. 그는 모든 정치 질서 즉 모든 정부를 법에 종속시켰다고 한다. 세속적인 권위는 정신적인 권위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는 법이란 하나의 규칙이고 인간행동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성과 관련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sup>7)</sup>

이 이원론적 사상은 로마교회에 비성경적인 사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로마카톨릭교회가 복음은 로마교회에 의해 보전되고, 복음의 원래적 순수성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할 때, 이 주장은 교회의 무오성을 전제할 때 한해서만 실효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로마교회가 이런 도그마를 정식으로 교리화하자 로마카톨릭교회는 그들이 실제 이러한 초자연적인 은사를 소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한 바가 허망한 말에 지나지 않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sup>8)</sup> 또한 로마 카톨릭교회는 초자연적 은혜의 분배처가 된다고 믿고 있으며, 진리의 보관소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시여자인 교회는 역시 입법부이며 사법부라는 것이다. 로마교회에 따르면 진리, 은혜 그리고 선한행위는 아주 독특하고 초자연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모든 축복의 보고처이기 때문에 은혜와 자연과의 관계는 교회와 세계와의 관계와 일치한다. 즉 이 세계, 국가, 자연적 삶, 결혼, 그리고 문화는 그 자체가 사악한 것은 아니다. 단지 이것들은 열등한 것이며, 세속적 성격의 것이어서 교회에 의해 성결케 되지 않으면 쉽게 죄악에 오염되게 된다.<sup>9)</sup> 이러한 사실은 이 세계에 대한 로마 카톨릭교회의 기능이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로마 카톨릭교회의 "교직계급적사고"는 자연과 은혜간에 뚜렷한 구분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중세기 말엽에 카톨릭교회는 거의 모든 점에 있어서 타락하였다.<sup>10)</sup> 물론 역사적 맥락에서 313년 콘스탄틴대제의 밀라노 칙령에 의하여 기독교가 공인종교가 되자 국가와 교회는 밀접해지고 교회도 세속적 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것은 사실이다.<sup>11)</sup> 그러나 이와동시에 사상적으로 구체화시켰던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성의 절대성에 근거한 이원론적 사고이며 이 사상은 궁극적으로 성경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

라 스토아철학의 자연법의 이론을 빌려온 것이었다.<sup>12)</sup>

## 1.2 칼빈의 법개념에 대한 세계관적 전제

종교개혁은 교회를 중심한 중세적 권위주의의 자기만족에 흐뭇하게 도취된 유럽을 정신적으로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뒤흔들어 놓은 일대사건이었다. 종교개혁은 유럽의 전체역사에서 교회와 국가, 기존법질서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였다. 종교개혁자들의 법사상내지 사회사상은 유럽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프로테스탄트교회의 전파와 함께 그리스도교적 법질서와 사회윤리의 기초로서 재음미되고 있는 ‘현재적 의미’를 띠고 있다.<sup>13)</sup> 종교개혁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외부적 부패상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서 있는 근거 자체를 공격하였고, 이 교회가 이것에 근거하여 여태껏 발전하여온 “원리”자체를 공격하였다.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의 모든 체제를 부인하였다. 개혁자들은 과학적 사고나 철학적 사색을 통하여 이런 새로운 개념을 주장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에 대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관심에서 이러한 개념들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종교개혁은 종교적, 윤리적 개혁운동이었다. 개혁자들은 즉시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믿어진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권위를 철폐하고, 이성의 무절제한 남용을 금지시키고, 인간의 공로적 행위를 크게 평가절하시켰다.<sup>14)</sup>

칼빈에게서 중세기간 동안에 시작된 자연-은혜 구조로부터의 철저한 결별과 함께 이교적이며 인본주의적인 사고의 흐름과 타협함이 없는 성경적 의미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인생관의 수립이 이루어졌다. 칼빈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정신은 로마카톨릭교회의 이원론이나 루터의 이원론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한편 죄악을 너무 깊이 또 심각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어떠한 영역에서든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어떤 선이 나온다고 하지 않았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타락한 인간은 모든 자연계를 황폐케해 버렸을 것이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 모든 피조물이 허무하게 굴복하게 되었지만 자연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원래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된다. 지금도 우리가 타락한 인간계에서 경험하는 모든 선과 참된 것이 다 이 일반은총<sup>15)</sup>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이성과 철학과 음악은 신의 귀중한 은사이다. 예술과 학문은 선하며 유용하며 하나의 높은 가치를 지닌다. 정부는 하나님의 제정으로 세워졌다. 결혼이나 가족이나 혈연관계나 혹은 다른 사회적 단체들 중 그 어느 것도 그것이 조직된 것이든 비조직된 것이든 국가의 일부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각각의 사회적 관계들은 그 자체의 생존을 위한 구조와 법칙을 하나님에게서 받으며 그 자신의 영역에서는 주권을 갖는다.<sup>16)</sup>

칼빈에 따르면 신앙은 인간의 전인격-영혼과 몸-과 양심을 새롭게 해 주고, 신인관계, 인간관계와 인간의 행동양식을 새롭게 해 준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 삶의 전반부에 걸쳐 -교회, 사회, 학교, 국가, 과학, 예술-심원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칼빈은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점에서 관조하였고, 우리의 삶 전체는 신의 법에 구속받아야 함을 언명하였다. 독선적 인간의 계율이나 교회 계율을 다 지킨다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며, 온갖 교회행사에 다 참여한다고 완전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매일의 일상적 의무를 충실히 다할 때 비로소 완전한 자로서 성장할 수 있다. 칼빈은 삶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봉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칼빈에게 있어서 우리의 일상적 삶은 종교적 특성을 지니며, 하나님 나라의 삶의 일부이며 거기에 포함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과 직업을 포기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주님께서 장차 우리를 새세계로 옮겨 놓으실 때까지는 불평없이 인내함으로 삶에 임하고 직업에 충실하여야 한다. 직업은 우리의 삶에 통일성과 균형을 가져다 준다. 이것은 삶 속에서 개개인에게 자신의 고유한 위치와 직무를 주게 된다. 이 세계는 일반은총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직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갖는 세속적 직업과 본질상 같은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에게서 유래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로마교회와 비교해 본다면 로마교회에 있어서 특별계시는 어떤 신비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칼빈에게 있어 특별계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이다. 로마카톨릭교회에 있어서 신앙은 은혜를 받도록 사람을 준비시켜 주는 동의 이상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칼빈에 있어서 신앙은 은혜를 받는 직접적 통로이며, 신의 능력에 대한 체험이며, 하나님이 존재하심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확신이며, 성격상 종교적인 것이다. 로마 천주교에 있어서 은혜는 인간측의 공로를 세우게끔 인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칼빈에 따르면 은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살게 해 주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능력이다. 칼빈에 의해 완성된 종교개혁은 로마카톨릭교회의 초자연주의와 이원론, 그리고 금욕주의에 종지부를 찍었다.<sup>17)</sup>

## 2. 법에 관한 칼빈의 이해<sup>18)</sup>

### 2.1 법의 제1용법; 시민법 & 자연법

칼빈에게 법은 세가지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법의 제1용법은 법의 시민적용법이다. 이 법은 하나님이 창조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간에게 계율로 내려준 것이다. 칼빈은 인간은 본성이 사회적 동물이므로 타고난 본성에 의하여 사회생활을 육성하며 보존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생활상의 공정성과 질서에 대하여 보편적인 생각이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고 한다. 칼빈은 자연법을 창조의 질서와 연관시키며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본래'행하는 것이 신의 의지를 반영하고 하나님의 일반은총으로 전멸되지 않고 보존되어 온 인류를 통해 퍼져 있는 인간의 감수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한다.<sup>19)</sup> 칼빈은 양심을 가리켜 "하나님에 대한 의무의 훈계자요 내적 증인"이라고 하였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게 하며 혹은 심판자의 법정에서 죄과를 피할 수 없게 하는 증인으로서의 신적 의에 대한 의식을 가지게 될 때, 바로 이 의식을 '양심'이라고 한다.<sup>20)</sup>

칼빈은 '의로운 행위에 대한 지식'을 설명하면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 자기가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는 사도바울의 증언을 (롬2;14-15)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것을 바울이 말하는 '자연법'이라고 하며 이 자연법에 의해 사람이 행위의 바른 표준을 충분히 배운다고 한다. 자연법은 '선악을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의 지각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무지를 핑계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린다.<sup>21)</sup> 이 법은 크리스찬에게나 비크리스찬에게나 필요한 것이며,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과 관련하여 정치적 사회윤리의 기본규범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의 복음은 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온 것이다. 시민법 혹은 정치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사회생활을하여 무질서로부터 세계를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다.<sup>22)</sup>

## 2.2 법의 제2용법; 율법-도덕법

칼빈에게 법의 제2용법은 '신학적 용법'으로 '죄를 깨우치는 역할을 하는 법'이다. 구약성서의 도덕률은 이 제2용법의 법이다. 인간이 정한 자연법은 사회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외적 교화의 목적을 갖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령이 침해 되었을 때에만 거론되지만 율법은 이와달리 심령적인 의에 이르기까지 깊이 관여한다. 하나님은 영적 입법자이시다. 인간의 법은 범행에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었는지 문제시 하지만, 율법은 영혼을 상대로 내린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바르게 지키려면 우선 영혼을 억제해야 한다. 율법은 마음과 의지의 복종을 요구할 뿐 아니라 모든 육의 오염을 씻어 버리고 오직 영의 향기만을 풍기는 천사같은 순결을 요구한다.<sup>23)</sup> 이 법을 통하여 인간은 자신의 죄를 알게 된다. 그러나 인간의 無力으로 인하여 그 법을 지킬 수 없을뿐더러 절망하여 다만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게 된다. 이 법을 통하여 인간은 늘 하나님의 진노에 떨게 되고 양심의 끊임없는 저주와 가책에 휩싸이게 된다. 그래서 칼빈은 율법의 기능을 첫째로, 죄를 깨우쳐주는 역할과 둘째로, 불의한 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해 주는 역할과 셋째로, 신자들에게 복종할 규범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

한편 율법은 그 성격에 따라 도덕적 율법, 의식적 율법, 재판적 율법의 세가지로 나뉜다. 도덕적 율법은 순수한 신앙과 경건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성실한 사랑으로 포용할 것을 명하는 규범으로서 자신의 생활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모든 민족과 시대에 유효한 참되고 영원한 의의 규범이다. 십계명이 바로 그 핵심이다.<sup>24)</sup> 의식적 율법은 유대인의 초보교육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sup>25)</sup>. 재판적 율법은 정치적 질서로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이며 그 목적은 유대인들이 형평과 의의 확실한 규범을 배워 정직하고 평화스럽게 살도록 하는데 있었다. 재판적 율법의 형식은 사랑의 원리를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재판적 율법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사랑의 의무와 계명은 변함없이 남는다.

율법중 항구불변의 요소는 도덕적 율법이며 이의 실현에 봉사하는 의식적 율법과 재판적 율법은 율법의 대강령인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을 헤치지 않는 한 변경 내지 폐지가 가능한 가변적 요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민족은 자체에 유익이 있다고 예상되는 법을 만들 자유가 있다. 그러나 이런 법은 사랑이라는 영원한 표준에 일치해야 하며 형태는 다를지라도 목적은 같아야 한다. 영구불변의 도덕률로서의 사랑의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무한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율법과 복음을 모순없이 연결시켜 준다.<sup>26)</sup>

## 2.3 법의 제3용법; 선교를 위한 법-법준수의 동기

칼빈에 의하면 법의 제3용법이 있는데, 칼빈은 멜랑톤과 함께 '宣教를 위한 법'을 인정하고 있다. 칼빈은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를 위하여 제3용법의 법을 교량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칼빈에 의하면 법의 제3용법이란 그리스도인의 안내자로서의 기본법이다. 이 법은 그들을 교육하고 순종하게 한다. 루터에 의하면 복음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므로 그리스도교인에게 율법은 불필요한 것으로 되지만, 칼빈은 그리스도인에게도 계속하여 법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인정된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법은 계속하여 진리를 가리키고, 견책하고, 교정하고, 선행으로 인도하여 인간형성에 계속 작용을 하는 것이다. 칼빈은 종교개혁자로서 역시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는 덕행에서 구원이 확증된다는 율법주의를 거부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용법의 법을 인정한 것

은 그의 법률가<sup>27)</sup>로서의 소양을 보여주며 인간악에 대한 철저한 불신 때문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에게 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형성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길잡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이다.

그것은 '사랑의 법'으로 이해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같이 법이 자기를 속박하고 양심을 혼란케하여 저주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통하여 부르시고 일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업에서 나타났다고 보았다. 제3용법으로서의 법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법은 죄를 깨우치고 부정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법으로 모든 죄를 다스리고 주체적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sup>28)</sup> 칼빈에 의하면 율법에 공동되는 최고의 원리는 사랑이다.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의무와 인간상호간의 사랑의 의무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경건과 올바른 종교적 의무들을 순종하므로 하나님의 숭엄성을 경배하라고 하신다. 둘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인간사회에서 거기 합당한 처신을 할 것인가를 가르친다. (눅10:27, 마22:37-39). 이 율법의 두가지 제목은 의를 실현해서 하나님의 순결을 본받아 인간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성결을 완성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한 감정으로 인류를 예외없이 포용해야 한다. 야만인과 문명인, 가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동지와 원수 등을 구별하지 말며 사람을 사람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보아야 한다. 자연법과 율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근거를 둔다.

### 3.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칼빈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자연법' 또는 참된 '인간성'에 따라서 또는 '중용'(中庸)의 법칙에 따라서 살으라고 칼빈이 자기의 교회 회중에게 말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있는 것을 보충하는 것으로서의 자연법적 지침이나 철학적인 생활규칙을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생활, 죽음 그리고 부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였고, 율법을 이루었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하고, 자연의 참된 질서를 회복하였으며, 인간성의 참된 본질을 드러내 보였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므로 그의 백성이 지금 여기에서 이 신비에 참여하게 되며, 따라서 개인으로서 그리고 사회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들의 삶속에 그리스도에게서 그 참된 인간성, 형상 그리고 질서를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이다. 자연법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의무들을 우리에게 예시하는 수가 있는 것이다.<sup>29)</sup>

#### 3.1 일반은총으로서의 자연법과 율법 및 사랑의 법과의 관계

칼빈의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율법의 둘째 돌판에 속하는 내용들은 자연인마저 그 자신의 양심과 전통과 환경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지식이 아주 중요하다.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은 사람이 자연법으로 올바른 행실의 법도를 충분히 가르침 받을 수 있는 사실이다".<sup>30)</sup> 이 자연법 또는 '자연의 질서'와 신적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법 간에는 참된 일치가 있다. "하나님의 율법과 모든 사람들에게 새겨져 있는 자연의 질서 간에는 일치가 있다".<sup>31)</sup>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하나님의 소위 도덕적인 율법은 자연법과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놓은 양심의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sup>32)</sup> 우리는 이 자연법의 영역과 중요성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절대적으로 눈먼 것이 아니다”라고 한 칼빈의 말은 자연인에게 비추어지고 있는 도덕적 빛의 정도<sup>33)</sup>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up>34)</sup>

자연인이 타락하였을지라도 아직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소유하였고(롬1:19-32), 또 아직도 양심이 있다. 자연인의 지식에는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심지어는 의지마저도 없다. 단지 “올바른 것과 불의한 것, 정직한 것과 천박한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을 뿐이다. 사람에게에는 “사회를 보전하는 본능”과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동정심이 있고, 야수같이 잔인하게 피흘리는 것을 혐오하며, 자기들의 본능에 거슬러 요나를 배에서 내던진 선원들이 보여준 것과 같은 살생(殺生)앞에서 공포감을 떠는 본능이 있다. 열방의 불경건한 자들도 성경의 교훈들에 의하여 강화되는 선행의 여러 측면들, 예컨대 나쁜 사귄과 악한 교제가 초래하는 악한 결과들, 행실뿐만 아니라 심령의 순결의 필요와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의무 등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sup>35)</sup> 또한 정부가 수립되어서 인간의 방종을 교정하며 인간사회의 질서와 예의를 잘 장려한다. 인간은 어른에 의하여 인도되며, 바른 동기와 목적에서 기인된 것은 아니지만, 진선미에 대한 가치와 유익을 안다. 사람들이 징벌이 무서워서 죄악된 성품이 충동하는 악한 일을 행하지 못하게 되며, 그러한 성품과 소원과는 반대되는 선한 일들을 상받기 위하여 행하도록 된다. 그런 행동들이 외형적으로는 법률과 일치된다.<sup>36)</sup>

법치국가형법은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을 덕목으로 생각한다. 형법학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 및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위해 기여하는 규제기능과 선도기능을 가지고 있다. 형법규범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금지와 명령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금지와 명령의 율법을 사랑의 법으로 완성시킨 분이시다. 형법은 단지 소극적 금지와 타율적인 명령만이 아니라 근원적으로는 적극적인 사랑과 자율적인 섬김을 우리 내면의 법의식에 호소하고 있다. 형법의 사회교육적 학습효과를 통한 사회통합적 예방기능의 목표는 결코 사회를 금지와 명령규범속에 얼어 붙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와 존경 속에서 생명력 넘치는 사회를 촉진하고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다.<sup>37)</sup>

### 3.2 복음의 한 요소로서의 자연법

칼빈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자연법’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나 우리를 전적으로 자연법에 따라 행하도록 결코 구속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칼빈이 인정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그가 자주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루심에 있어서 만물의 자연적 질서에 따르고, 자연법을 존중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한다.<sup>38)</sup> 기독교인은 ‘상식에 맞는’ 의무들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흔히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에게 단지 인간적이고 본성대로이기를 명령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칼빈의 경우, 만물의 자연적 질서에 순응하는 것은 성도의 생활의 참된 기독교적 요소에 대한 단순한 보충이나 보완으로서 행해지는 바 우리의 의무의 제2차적이거나 동떨어진 측면이 아니고, 그것은 기독교적 경건의 본질적 요소이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독교인의 새 생활에 절대 필요한 요소인 것이다. 칼빈의 경우 자연법 곧 하나님의 법에 나타나 있는 인간생활의 참된 질서와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 있고 제정되어 있는 인간생활의 참된 질서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독교 생활은 이 세상의 일상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이같은 자연적 질서의 표현인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 자신은 주저함 없이 복음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자연의 질서와 자연법에 따라 그의 청중과 독자가 살 것을 강권한다. 그가 자연법에 이같이 강하게 호소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서 떠나 새로운 종류의 지침과 영감의 근원을 결코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연적 영역을 사용하여 기독교인을 위한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의 상세한 것들을 그는 예증하며 충분하게 보완한다. 기독교인의 경우, 자연법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분리되어서는 안되며, 하나님의 율법 또한 자연법으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된다. 기독교인은 이 둘을 다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다.<sup>39)</sup>

### 3.3. 그리스도인의 생활원리; 상호교통과 상호복종

마태복음5; 43에 관한 해석에서,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고 하는 ‘일반적 개념’으로 온 인류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 간에 ‘거룩한 교제’가 있다고 칼빈은 확언한다. 이것은 사람의 부패성마저도 침해하지 아니한 자연의 질서의 한 요소이다. 이것은 “본성 자체가 명하는 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행해지는 형제 우애에 의한 ‘상호 교통’으로 나타난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본분을 전적으로 본성적인 기초에 칼빈은 근거하고 있어 보인다. 우리가 공통된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 인식자체가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 및 예수님의 가르침의 명령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이든지간에 이웃들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다는 것과 모두가 공통된 인간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인간관계에 대한 칼빈의 모든 가르침의 초석이다. 이 인간관계 자체가 다른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따라 살아야 하는 ‘자연의 질서’를 정의한다. 자연의 질서에 의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함께 묶으셨고,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이 세상에 그들을 두셨다. 만일 우리가 평화롭게 살지 아니하거나 서로 화합하지 아니하면, 자연의 질서가 깨뜨려진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사악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형제나 이웃으로 여겨지기에 아무리 미천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에 우리가 마땅히 준행해야 하는 이 질서를 변경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의 동료에 대하여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그에 대하여 우리 자신이 인간적임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단지 의미할 뿐이다. 인간의 삶을 해치는 모든 잔인성과 교만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피차 간에 겸손과 공의로 행동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공통된 인간성을 잊거나 무시할 때, 그리고 그 인간성을 소유하고 있음을 잊거나 무시할 때 생겨난다. 자기의 불쌍한 동료들에게 동정과 자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비인간화시킨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만일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사랑도 베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인간성의 상실을 의미하며,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자동적으로 들 수가 없게 되고 짐승들 가운데 들게 되는 것이다. 만일 우리의 동료인간을 해치는 것이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의 동료 기독교인을 해치준 것은 “예수그리스도를 산산조각으로 찢는 것”에 해당한다.<sup>40)</sup>

칼빈은 자연의 질서에 있어서 인간 상호 간의 전체 본분을 ‘상호 복종’의 본분으로 규정한다.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 사람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되는 명에, 곧 ‘복종의 보편적 관계’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간에 아주 밀접하게 결속시켜 놓았기 때문에 아무도 복종을 면하려 해서는 안된다. 사랑이 지배하는 곳마다 상호예속이 있다”<sup>41)</sup>

백성과 통치자, 종과 주인,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에 의하여 정해진 불가침의 질서의 한 요소이다.<sup>42)</sup> 이러한 질서가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권세있는 자들이 그들의 고유한 자리를 견지하지 못하거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그들 위에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인간사회가 지탱될 수가 없다.<sup>43)</sup> 사회 내의 이러한 질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원만하고 건실한 인간적 생활을 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정하셨다.<sup>44)</sup>

하나님은 세속적 부권의 지위와 세속적 왕권의 위엄에서 그 자신의 본성이 반영되게 하신다. 그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시고, 그 자신의 권위를 나눠갖게 하신다. 모든 형태의 세속적 권위 행사에 있어서 공통된 인간성에 대한 인식과 겸손을 칼빈은 자주 요청한다. 권위를 행사함에 있어서 거칠거나 횡포하는 것이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통치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라와 정권을 세우신 이유가 약자들의 복지를 마련해 주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왕들과 정부 관리들과 주인들은 자기 아래 있는 자들에 대한 사랑의 복종을 결코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만일 아버지들이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존귀를 받을 수 있도록 자녀들을 다스리려고 한다면, 집을 다스릴 때 자기의 자녀들에게 복종하는 일도 있게 된다는 것을 아버지들이 기억해야 한다. 또한 칼빈은 남편들에게 권하기를, 연약한 그릇인 아내들을 뒷받침하는 일에는 그녀에 대한 복종과 권위를 사려분별력 있게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한다. 그렇게 해야 병들 때나 건강할 때 아내가 자기의 동반자가 되어주고, 자기 또한 이 상호관계가 주는 축복들 중 자기 몫을 받게 되는 것이다.

통치자들과 부모와 남편은 그들 자신이 비록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권위를 남용한다 할지라도 순종되고 존경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적신분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개인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개인들에게 하나님이 새겨주신 불가침의 위엄이 있음을 유념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이든 관계없이 그와 상호 의무 관계로 결속되는 것처럼, 바로 그 섭리에 의하여 더 밀접하고 더욱 더 의미깊은 때로 우리가 부모, 주인 그리고 권세잡은 자들과 결속되는 것이다.<sup>45)</sup> 그러므로 자녀가 그의 부모를 멸시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설사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그 존귀를 받을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자연의 영구적 법칙은 사람의 죄들로 말미암아 뒤집히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말을 칼빈은 놓치지 않고 인용한다. 우리의 세속적 신분에서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의 직분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리 많은 존경을 표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에게서 순종을 요구함에 있어서 넘어서는 안될 한계가 있다. 우리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다니엘의 경우 그의 왕이 그의 한계를 넘었을 때 그에게 다니엘이 순종하기를 거부한 것은 좋은 실례이다(단6:22).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들도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 아래에서만 자기자녀들을 다스린다. 모든 사회적 구분들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이다. “세상이 종말을 보게 되어 있는 것처럼, 정부, 정권, 법률, 계급의 구분, 각종 신분제도와 그러한 종류의 모든 것들 또한 종말을 보게 될 것이다. 주중간이나 군신간이나, 관민간에 더 이상 아무 구분도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천군천사와 정사들이나, 교회 내의 목회자들과 고급 성직자들도 그 신분이 종말을 보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 홀로 사람들이나 천사들의 도움없이 그의 권세와 주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함이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지체 높은 자들이 교만하거나 건방지지 않게 되고, 모든 억눌린 여성이 위로를 받으며, 이 세상에서 힘있는 자들의 외관상의 권세에 복종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 자들이 담대해진다.<sup>46)</sup>

#### 4. 결론: 세계관 변화와 법의식을 가진 교회

칼빈은 로마카톨릭교회의 부패의 원인은 도덕적 문제이전에 사상적 기초에 그 문제가 있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곧 그것은 세계관의 문제요 사고의 패러다임에 그 문제의 핵심이 담겨있었다. 그것은 스콜라철학에 영향을 받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원론 사상이다. 그래서 교회는 상층부의 위치에 있으며, 세상은 하층부에 있는 두 사이에 건널수 없는 담을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교회는 무오하며 초자연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스스로 믿었다. 하나님의 은총은 교회안에만 있는 것으로 여기며 가장 도덕적인 것으로 자만에 빠져 있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교회의 조직체계를 계급적으로 만들었으며, 그 결과 권위주의로 나가게 된 것으로 본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런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교회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종의 리드십<sup>47)</sup>을 포기하고 카리스마적 권위를 한몸에 지닌양 고집과 아집에 빠져서 대화의 단절과 독재적인 행정방식으로 자신의 한계성에 방패막이로 삼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 성찰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제기해 본다.

또한, 이원론 사상은 교회성도들을 교회의 울타리속에 가두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sup>48)</sup> 그래서 교회안에 있는 교인은 거룩하고 신령하며 교회밖의 사회는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부재한 마귀의 나라로 여기게끔 만들었다.<sup>49)</sup> 오직 모든 관심을 교회안의 프로그램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성공과

부흥인 것으로 만족하지는 않는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사회를 기대하며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사회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소홀히 여겼는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칼빈은 많은 설교와 교육에 바쁜 나날들을 보내면서도 제네바시의 문제 구석구석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야 한다.<sup>50)</sup> 그 이유는 이 사회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영역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고, 사람의 생명의 존귀성을 신뢰하고 그러한 가치관을 선교적 차원에서 사회에 확산시켜 나가야 할 책임을 안고 있다. 생명의 존귀성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속에서 배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참으로 그 얻은 것이 이 목숨 하나만 같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원칙이 흔들리는 사회는 혼돈과 붕괴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51)</sup> 교회 스스로 우리의 공동 사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이웃의 비극과 죄악을 바라보기만 하는 소극적 참여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비극을 자신의 비극으로 가슴을 안고 그 비극이 되풀이 되는 고리를 끊는 적극적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과 몸가짐을 가져야 하겠다. 정의와 처벌을 논하기 전에 우리 모두의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간성의 깊은 곳에 잠재된 영원한 신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sup>52)</sup> 양심이 마비된 오염된 사회에서 교회는 죄와 양심의 부름에 깨어 있어야 하고 사회를 향해 신선한 역풍을 불어 놓아야 한다. 죄를 부끄러워하는 사회분위기를 교회가 앞장서서 형성해 나가야 한다. 가정과피범의 생명이나 태아의 생명, 기형아의 생명도 생명의 신성성 때문이 아니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갖도록 사회를 일깨워야 한다. 교회는 신앙의 차원에서 인간존중의 뜻을 피우고 법과 사회의 새로운 도덕적 재무장을 촉진시키는 연대운동을 펴나가도록 잘 훈련된 하나님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 1) 세계관이란 “이 세계의 근본적인 구성에 대해-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일련의 전제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들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하는 준거들을 제공하는 유의미한 단어나 개념체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 2) 헤르만 바빙크, 칼빈과 일반은총; 윌리엄 팩 암스트롱, 칼빈의 종교개혁사상, (서울:기독교문사,1986),pp.113-115.
- 3) 눅3:12-14 세례요한의 세속직업에 대한 사회정의를 요청하는 설교에서.
- 4) 윌리엄 팩 암스트롱, op.cit, p.116.
- 5)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성(理性)과 신앙(信仰)을 예리하게 구별했다. 신학은 계시(啓示)에 의존하며 철학(哲學)은 이성(理性)에 속한다. 그러나 이성의 권위는 철학의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신학에까지 미친다. 신학의 분야일지라도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은 이성의 힘으로 탐구하려고 한다. 이것은 곧 자연신학이다. 世界哲學大事典,成約書館,1977, p.1132.
- 6) 한스 로크마커, 현대예술과 문화의 죽음. 김유리역, (서울:한국기독교학술회,1993),p.42.
- 7) 토마스 아퀴나스와 스콜라철학자들, 신적세계질서의 반영과 그 부분으로서의 법; 칼 후드리히, 법철학, 이병훈 역, (서울:교육과학사, 1996.6.25),pp.78-81
- 8) ibid, pp.116-117
- 9) 이러한 이원론에 입각해있던 스콜라철학자들은 종종 그들의 이원론을 다소 약화시켜 그 안에 통일성의 여지를 마련하고자 했다. 즉 그 통일성이란 교회를 말하는 것 같다. 중세기 로마교회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듯한 용태로 솟아 올랐을 때, 세속세계마저 그 속하에 복속시키려는 작업이 이들 스콜라철학자들에 의해 기도(企圖)되었던 것이다.
- 10) ibid, pp.117-119. 로마카톨릭의 중대한 오류들을 로이드존스의 글을 인용하여 몇가지 지적한다면 첫째로, 성경에서 정죄하는 우상숭배를 그들은 동상과 조형물들과 초상화들을 숭배하므로 저지르고 있다. 둘째로, 카톨릭만이 우리의 영혼과 구원을 책임질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충성과 굴복을 강요한다. 1870년에 교황의 절대무오성 교리를 규정했지만 이미 오래전에 그것을 그들은 믿어왔다. 셋째로, 뱀전2장9절은 우리 모두가 성직자라고 한다. 그러나 카톨릭은 교회의 성직수임을 받아, ‘사도적 계승’에서 나오는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로마카톨릭의 사제는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 우리 죄들을 고백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넷째로, 카톨릭은 세례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의가 아니라, 세례받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의이다. 그러므로 오직 사제가 베푸는 세례를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것에서 교회와 사제의 권위가 절대적이며 필수적이 된다. 그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며, 우리의 운명은 오직 그들에게 달려 있게 되는 것이다.마틴 로이드 존스,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hitel.
- 11) 최종고, 法思想史,(서울:博英社,1992.4),p.58.
- 12) ibid, p. 59.
- 13) 법사상사, op.cit, pp.83-84.
- 14) 윌리엄 팩 암스트롱, op.cit, pp.120-121.
- 15)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는 달리, 우주를 유지하시고 죄를 억제하는 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 일반은총이다.
- 16) 홍구화, 칼빈의 법이해,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1,pp.32-35.
- 17) 윌리엄 팩 암스트롱, op.cit, pp.122-137.
- 18) 토마스 아퀴나스와 칼빈의 법에 대한 차이점을 고찰해 본다면 토마스아퀴나스는 법을 이성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법을 입법자시도 법의 절대자인신 하나님의 자리에 이성을 입법자로 세운다면 결국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타락한 인간의 양심에 따라 인간을 평가한다면 이 세상은 판단의 기준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진다. 그런점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본주의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이성은 타락의 영향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정확하게 나타낼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법도 자연주의적 관점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도외시한 정의와 공의만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는 율법주의에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칼빈은 법을 하나님나라의 관점에서 조망하였으며, 영혼의 법이라 할 수 있는 도덕법과 양심의 법이라 할 수 있는 시민법 혹은 자연법이고 동시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축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성경적 법사상의 핵심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부합하는 원리가 된다. 결국 토마스 아퀴나스와 칼빈의 차이점이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 19) 김득룡, “칼빈주의의 문화적 영향력 소고”, 신학지남 제49권1집(1982.3)p.98,재인용 홍구화, op.cit, p. 57.
- 20) 칼빈, 한.영기독교강요,제3권,19장 15절
- 21) 강요2권2장22절
- 22) 법사상사, op.cit, pp.88-89.
- 23) 강요2권8장6절
- 24)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길로서 율법이 그치고 폐지되었으며, 시민법도 그 기능을 다 행사하고 주장하지 못해도, 윤리법은 엄히 지켜지고 준행되어야 할 법칙이다. 구약과 신약의 윤리법은 지금도 변함없이 지켜지기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법이다. 이 법을 어기면 범죄자이지 다른 길이 없다. 7계명을 범하면 간음자이고, 8계명을 범하면 도적이요, 6계명을 범하면 살인자이고, 1계명을 범하면 우상숭배자이다.서철원, 복음과 율법의 관계, 서울:엠마오, 1994.6),p.119.
- 25)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옛 언약의 구원 질서들 곧 모든 의식법들의 시행을 종결시키고 폐하셨다. 그러나 그 의

- 식법의 본질과 정신까지도 소실되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 의식법의 본질과 정신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와 경건생활의 규범이 되게 하였다. 구약의 예배 수종자들과 참가자들이 물과 짐승의 피로 자기들의 몸과 제단과 그 도구들을 정결케 하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새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고 어떻게 기록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인가를 지시하고 회상시키며 깨우쳐 준다. Ibid.,p.114.
- 26) 강요4권20장15절
- 27) 1525년이나 1526년경에 칼빈의 아버지는 칼빈을 민법을 공부하도록 오를레앙대학으로 보냈다. 오를레앙 대학의 학생들은 학사학위를 따기 위해서는 로마법 대전을 완전히 터득하여야 했다. 오를레앙대학에서 보낸 대부분의 시간을 칼빈은 비와 물의 배설관계, 의지의 권리, 임대차, 구매와 소유, 결혼과 이혼, 상속 등에서 인간이 이웃과 불화의 수없는 물질적인 원인과 로마의 여러 세대와 중세의 법학자들이 논쟁을 벌였던 결정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었다. 그의 법을 연구하는 방법은 본문에 의한 언어학적이고 역사적인 성격의 연구로써 민법을 연구하는 방법을 확립시켰다. 칼빈은 약 3년안에 학사 학위를 따고, 3년의 기간동안 법학석사를 취득했으며 1536년에는 법학사의 자격이 수여되었다. 정성구, 칼빈의 생애와 사상, 서울:세종문화사,1980, pp.101-108.
- 28) 법사상사, op.cit, pp.88-89.
- 29) 로날드 S.윌레스, 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 나용화역,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1996.2.10. ,p.4.
- 30) Inst. 2;2;2. 칼빈의 주석 롬2;14-15.
- 31) 칼빈의 설교.딤후.5:4-5.
- 32) Inst.4; 20; 16.
- 33) 여기서 자연인의 도덕적 빛을 일반은총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칼빈에 의하면 사람의 본성은 너무도 타락하여서 그 본성으로서는 어느 부문의 선행이든지 할 수가 없다. 죄는 다스릴 수 없는 짐승과 같아서 모든 것을 파괴하고 멸망시킨다. 그러면 인간성이 타락한 불신 사회에서 발견되는 칭찬할 만 하고 훌륭한 행위들을 우리는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칼빈의 대답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 택한 자들은 죄악적 질병을 아주 고쳐 주시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 한하여는 그가 우주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신 범위내에서 저들의 죄악의 준동을 제재하실 뿐이다. 그래서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부끄러워서, 어떤 이들은 법의 공포에 의하여, 여러 가지 더러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제재를 당한다. 헨리미터, 칼빈주의, 박운선, 김진홍역, 서울:개혁주의신행협회,1994.9),PP.53-54.
- 34) Inst. 2; 2; 22.
- 35) 로날드 S.윌레스, op.cit, pp.182-184.
- 36) 헨리미터,op.cit. ,p.54.
- 37) 법익보호를 삼는 형법질서내에서 모든 법익중 최상위의 법익에 해당하는 것이 인간의 생명이다. 인간의 생명은 신체의 완전성, 자유, 명예, 재산등 어떠한 가치있는 것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점에서 심계명중 인간사회에서의 첫 번째 법이 살인하지 말라는 법은 형법의 정신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깊은 관계성을 엿볼 수 있다. 김일수, 법에 나타난 성경적 연원.특히 형법을 중심으로-,총회목회신학원에서 강의한 내용임.
- 38) Ibid.,p.184.
- 39) Ibid.,pp.184-187.
- 40) Ibid.,pp.190-195.
- 41) 칼빈주석. 엡5;21.
- 42) 칼빈의 설교. 갈.3;26-9.
- 43) 칼빈설교. 출.20;12.
- 44) 칼빈설교. 신.5;10
- 45) 칼빈설교. 신.22;1-4.
- 46) 칼빈설교. 사.53;1-4.
- 47) 막10;42-45.
- 48) 현대의 그리스도인의 이원론적 행동 패턴; 1. 타협형;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포기하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한 모습, 2.분리형; 갈등과 싸움을 견디기가 힘들어 현장에서 잠적해 버리는 모습, 3. 이원론형; 이중적인 가치관, 이중적인 행동양식, 이중적인 목표를 지니기 때문에 갈등도 문제의식도 없이 둔화되어 버린 신앙적 행태. 이종일, 기독교세계관, unitel,기독교문화,1996, p.5.
- 49) 사실 사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속에 기생적 성격 내지 제한적 성격을 가진다.(눅8;31-33) 사탄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창조계에 기생하여 그것을 왜곡하고 파괴하려 한다. 교회밖은 사탄의 나라로 판단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 50) 칼빈은 제네바에서 목회활동, 신학 저술과 함께 제네바를 질서있고 경건한 사회로 만드는 데 전력을 투구하였다. 시 행 정에도 관여하였고, 사회복지, 질서, 교육, 소방, 건축공사 감독, 무기, 경찰, 경비 문제에까지 전문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베른과의 국경문제 해결에 제네바 대표가 되기도 했으며 다른 도시들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초청을 받기까지 했다. 그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1559년 지금의 제네바대학이 설립되기도 했다. 칼빈의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제네바는 한 때

〈경건한 도시〉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까지 했다. 손봉호, 켈빈의 사회사상; 사회철학대계. 제1권 고전적 사회철학사상, 서울:민음사,1993,p.206.

51) *ibid*, p.67.

52) *ibid*, p.67.